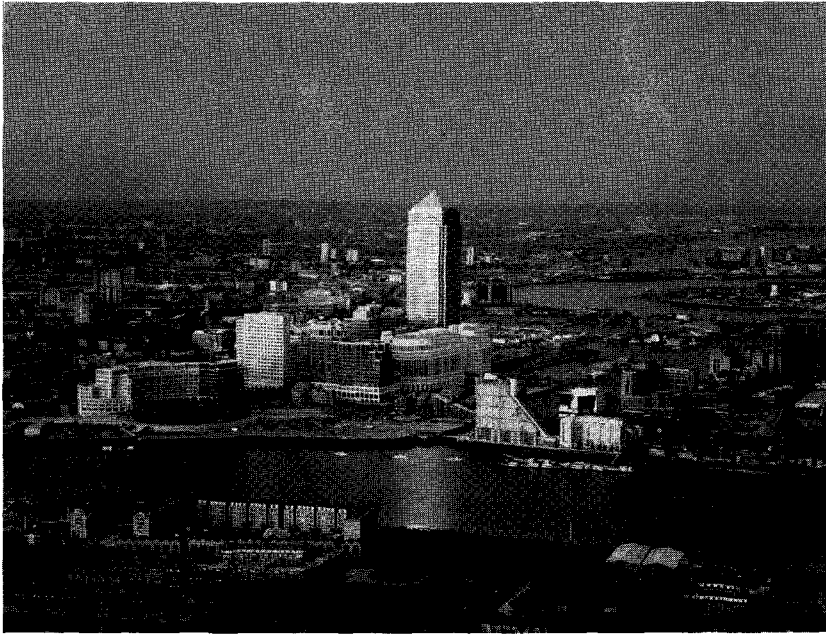


## 해외건설 4반세기가 낳은 주요기록



**지난 '66년** 현대건설의 태국 파타니~나리티 왓간 고속도로 공사로 해외건설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4반세기를 넘는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건설수출은 지난해 4월 삼성건설의 태국 핑크라오 아파트 수주를 계기로 누계 1천억 달러를 돌파, 해외수주 세계 7대국으로 부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해외건설은 국제수지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다른 산업의 해외진출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산업이다.

그러면 건설수출 4반세기가 낳은 주요기록 가운데 일부 공사를 간추려 알아보기로 한다.

### ■ 해외건설 1호

'65년 9월 현대건설은 태국 정부가 IBRD차관 사업으로 국제경쟁입찰에 부친 파타니~나리티 왓 두 도시를 잇는 98km의 2차선 고속도로 공사를 15개국 28개 업체가 참여한 입찰에서 5백22만 달러의 공사비로 수주했다.

당시 국내외의 모든 건설 공사 계약액의 61.6%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이 공사는 '66년 1월에 착공돼 '68년 3월에 준공되었으나, 현대건설은 고속도로 건설의 첫 경험의 대가로 3백만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



■ 연도별 건설수출현황 [단위 : 백만달러]

80년	8,259
82	13,321
84	6,502
86	2,239
88	1,602
90	6,770
92	2,783
93.11	3,388

■ 세계 최대공사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이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맡고 있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사막을 육토로 바꾸는 세계 최대의 토목공사로 공사금액이

1단계 : 36억1천61만5천 달러

2단계 : 55억1천4백만 달러(계약금액 46억3천만 달러)

3단계 : 예상금액 : 1백50억 달러의 규모이다.

또한 세계 최대의 토목공사임을 반영하 듯

①공사 투입인원(1단계 연인원 3천만명)

②건설중장비 동원(140종의 5백50만 대)

③시멘트 사용량(3백만 톤)

④인공저수조(저수능력 4백만 톤) 등의 규모이다.

위대한 인공강(GMR)로 불리는 이 공사는 1.2단계 총연장 3천2백96km의 대형수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83년 6월 설계에서 제품 생산(초대형

송수관으로 내경 4m, 길이 7.5m 무게 75톤 짜리)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두 11개 공정을 맡는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 최소규모공사

50억 달러가 넘는 초대형 공사가 있는 반면 1백만 달러 미만의 작은 공사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최소규모공사는 지난 '91년 선경건설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폐수처리공장 타당성 조사로 시공분야가 아닌 용역분야로 용역기간은 1개월이며 용역비 규모는 불과 1만1천 달러이다.

당초 선경건설은 이 폐수처리공장 플랜트 수주를 위한 포석으로 용역은 수주했으나 플랜트 수주에서는 실패하고 말았다.

■ 세계 최고높이 호텔

쌍용건설이 4억 달러에 수주, 연인원 2백75만 명이 투입돼 6년만인 '86년6월에 준공된 싱가포르의 레플즈시티에 있는 웨스트 스템포드 호텔은 지상 73층, 높이 2백26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로 기네스북에 올라있으며 고속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최고층까지 올라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단 3초에 불과하다.

스템포드 호텔은 종전 최고 높이 호텔인 미국 아틀랜타의 플라자 호텔의 기록을 앞지른 것으로 이 호텔 옥상에서는 싱가포르 전역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보인다.

레플즈시티는 이 호텔을 포함해 4개의 고층 타워 빌딩으로 형성된 연면적 11만6천8백30평의 복합 건축물이다.

■ 세계 최고 오피스빌딩

극동건설과 삼성건설이 현지업체인 자사테라사와 공동으로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시티 센터의 지상 높이가 4백46m인 92층짜리 쌍둥이빌딩 건축공사를 일본 업체와 1개동씩 수주했다.

올 4월에 착공돼 '96년 6월에 준공 예정인 이 빌딩 1개동 규모는 지상 92층 지하 5층 연면적 19만6천3백9㎡로 공사금액이, 2억2백만 달러로 참여지분은 삼성건설이 40%, 극동건설과 자사테라사가 각각 30%이다.